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 09 · 10
열매소식지

특집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는 모범이 되는 교회

* **비전메시지** 교회의 사회참여
* **기획좌담** 교단선거법,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강화하자
* 깨끗한 총회 캠페인 후기
* 장신대 교회 밖 현장실천 참자가 즉석인터뷰

별지부록 세월호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0416〉 스티커

기실
Christian Ethics Movement

한국 기독교계의 일대 자성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책

《무례한 기독교》 확대개정판!

무례한 기독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을까?

복음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면서도 세상 속의 기독교가 마땅히 보여 주어야 할 모습에 대한 열린 목소리를 높여 온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는, 기독교는 열정적이지만 그만큼 무례할 수밖에 없다는 안팎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 주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탁월한 통찰력으로 밝혀낸다.

리처드 마우 지음 | 홍병룡 옮김
226면 | 10,000원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한국 교회에는 기독교적 교양이 시급히 요구된다."
_신원하(고려신학대학원 교수)

박득훈 목사(새맘교회), 임성빈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양세진 대표(소셜이노베이션그룹) 추천!

ivp www.ivp.co.kr

CONTENTS

목차 003

특집 |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는 모범이 되는 교회

비전메시지 교회의 사회참여_임성빈 공동대표 004

기획좌담 교단선거법,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강화하자 006

총회 임원선거 인식 설문조사 결과

깨끗한 총회 캠페인 후기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는 모범을!" 009

장신대 교회 밖 현장실천 참자가 즉석인터뷰 010

더 높은 책무성 | **|자발적불편운동|** 10월 캠페인 "남김없이 먹고, 아낌없이 나누기" 012

|청년TNA| 청년TNA 6기 "청년의 발견" 013

|회원만남|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기윤실과 함께해요 _한창희 회원 014

더 깊은 투명성 | **7 · 8월 회계보고, 후원자명단** 016

더 넓은 공공성 | **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 020

전국기윤실수련회 후기 내년이 기대되는 전국기윤실수련회 022

활동보고 활동계획 활동스케치 023

기윤실운동에 동행해 주세요 02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이사 홍정길(이사장) 강영안 권장희 김양재 김홍섭 노영상 문애란 박은조 방선기 백종국 송인수 유해신 이동원 이문식 이의용 임성빈 전재중 정애주 정현구 조재호 조홍식 주광순 최상태 **감사** 김남홍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김경섭 김일수 손인웅 이장규 한헌수 **공동대표** 박은조 백종국 임성빈 전재중 **상임집행위원회** 백종국(위원장) 박은조 임성빈 전재중(공동대표) 신동식(정직윤리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신원하(기독교윤리연구소장) 정병오(교사모임 발기인) 조흥식(사회복지위원회 발기인) 조제호(사무처장) **기독교윤리연구소** 신원하(소장) 이장형(부소장) 고재길 송준인 임낙형(운영위원) 강진구 김동춘 김승곤 노영상 박노욱 이상원 임성빈 추태화 홍순원(연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라창호 조흥식(공동위원장) 조태례(부위원장) 박정수(총무) 고기숙 권오용 김미혜 김동배 김정진 김수정 김한옥 김현호 김혜란 두재영 두준기 박경숙 박지영 백은령 송시섭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유진현 원명순 이기영 이만동 이무영 이영분 이창희 장동한 장원종 장인복 조흥식 **교사모임** 김영식(대표) 김홍임(총무) 권순홍 김종대 김진우 김애희 노명원 서헌희 우희정 이미나 이화진 임현경 정연석 천무현 최나영 **사무처** 사무처장 조제호(조이) 간사 박제민(시닌) 박진영(리나) 김효준(기묘) 김현아(어진) 협동간사 김지숙(휼)
전국기윤실협의회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여수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진주 청주 제주(준)
협력단체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자살예방센터 기독법률가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생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직장사역연합 크리스천라이프센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4년 9~10월호 **통권** 243호
소재지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홍정길 **발행일** 2014. 9. 22
편집인 조제호 **편집** 박진영 **디자인** 지은실

보고기간 2014년 7월 18일~9월 22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앙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회참여

글_임성빈 공동대표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예수님은 소위 종교적인 사안만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돈과 권력, 이웃과 같은 주제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는 개인의 구원 뿐 아니라 사람들이 발 붙이며 사는 세상의 질서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며, 이 땅에서 인간됨을 파괴하는 폭력과 질서에 대항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퍼뜨립니다. 또한,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을 폭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문화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 참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지탱하는 권력을 상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새로운 통치방식으로 세상의 힘을 재고합니다. 권력이 정당하게 형성되었는지, 권력은 잘 배분되고 있는지, 권력은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는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의하게 힘을 남용하거나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권력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사회참여를 정권을 감시하는 것으로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사회참여는 거리로 나가 당파성을 띤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참여의 주된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세상의 힘을 재편하는 신앙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신앙인들에게 사회 참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권력을 형성하고 배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신앙인에게는 세상의 불의와 모순을 보게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참여의 토대는, 만유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함에 대한 기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인들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포함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힘을 재편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적인 신앙과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계약사상을 강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영역과 범위가 온 우주에 미친다는 하나님의 주권사상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은 우리에게도 책임을 부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실현할 행위자인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부여된 '생육하여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창1:28)의 수행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우리의 책임영역이 우주 전체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주 관리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확실히 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을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악마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신앙인으로 하여금 신앙의 눈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 전반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게 합니다.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커질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권력을 형성하고 행사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만유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회 참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교단선거·총회 운영 실태를 말한다' 기획좌담

교단선거법,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강화하자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깨끗한 교단총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총회 임원선거의 투명성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교단선거법개정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교단의 총회가 몰려 있는 9월을 맞아 기윤실은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교단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본 좌담내용은 국민일보 9월 11일자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기사 내용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기윤실의 깨끗한 총회 운동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담일시 : 2014년 9월 2일(화) 오후6시
패널 : 백종국 교수(경상대, 기윤실 공동대표)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진행 및 정리 : 박재찬 기자(국민일보)
사진 : 강민석 선임기자(국민일보)

◀ 백종국 공동대표

◀ 정성진 목사

◀ 조성돈 교수

Q1. 교단 선거에서 부정 · 금권 선거 의혹이 그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는가.

△정성진 목사(이하 정 목사) = 금권·불법 선거가 거의 차단되다시피 한 사회 선거보다 교단 선거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계 내부에 대접받는 관행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백종국 교수(이하 백 교수) = 승리하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교단의 선거법·제도가 너무 부실하다

Q2. 선거공영제 도입이라든가 부정선거감시 활동 같은 선거자정 노력이 교단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한계도 노출되는 것 같다. 이같은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조성돈 교수(이하 조 교수)=기윤실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단의 선거 규칙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70%가 넘었다. 처벌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정 목사=2년 전쯤 소속 교단의 선거감시활동을 책임진 적이 있다. '돈 봉투'를 받았다는 2명의 제보자가 있어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

Q3. 교단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선거법이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법이 많고, 선거법 개정 작업 또한 지지부진하다. 왜 그럴까.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백 교수=선거관련법을 모든 총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이어 교단선거법을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한다. 교회 선거가 세속 선거의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

△조 교수=무엇보다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후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분명한 탓이 크다. 처벌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기윤실이 마련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주요 교단에서 도입하거나 준용할 만하다.

△정 목사=현재 공직선거법으로는 금권·불법선거를 꽁꽁 묶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교단선거법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Q4.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단 총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

△조 교수=총회에 다양한 총대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보장돼야 한다. 청년과 여성, 전문가 그룹들에 발언권 등을 부여해서 이들의 의견과 제안이 총회 석상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백 교수=총회장의 역할을 사회자로 국한하고 주요 정책 등 실무는 3~5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된 전문위원들이 연속성을 갖고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 또한 장로들도 총회장이 될 수 있어야 형평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목사=1차로 전체 총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성찬을 통한 모임과 교제를 나눈다. 2차로 300명 이내의 전문위원 등이 전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를 하게 해야 한다.

Q5. 총대들에 비해 평신도들은 총회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평신도들이 총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조 교수=성별과 연령대가 다양한 총대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이 각자의 교회나 교계 단체 들을 통해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언로(言路)가 될 수 있다. 남녀로 구성된 청년들과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백 교수=건강한 기독시민단체와 평신도들을 육성·활용하는 방안이 쉽지 않을까. 이들 평신도 단체가 총회에 관심을 갖고 총회 안팎에서 목소리를 낼 때 자연스럽게 평신도들과 총회 간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정 목사=총회를 마친 뒤 교단의 주요 결정 사항을 소속 교회에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회의나 토론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목사·장로 80%, "총회 임원선거 깨끗하지 않다"

기윤실 총회 임원선거 인식 설문조사 결과

기윤실은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각 교단의 총회 임원선거 규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7월 21일(월)부터 8월 20일(수)동안 약 한 달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해 총 94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0.9%가 총회 임원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깨끗하다는 의견은 19.1%에 그쳤습니다. 총회 임원선거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로 제일 많았고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3.4%가 현재 교단들이 운영하는 임원선거 규칙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보완되어야 할 규칙으로는 불법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44.7%, 당선 무효 조항 및 무효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총회 임원선거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94.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장로님들의 참여가 저조해(총 94명 중 장로는 13명) 전체 응답자는 적었지만 다양한 교단(11개 교단) 소속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응답해 주셨고, 응답자의 34%가 총회 대의원을 맡았을 정도로 교단의 선거 사정을 잘 알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조사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돼 표본집단이 크지 않지만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결론적으로 현장의 목사님, 장로님들은 임원선거 규칙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 불법과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기윤실은 이런 열망을 이어받아 계속 교단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총회 임원선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하다 19.1%	깨끗하지 않다 80.9%

-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적발시 처벌 강화 39.4%	후보자 검증 강화 37.2%	기타 23.4%

- **각 교단의 선거규칙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26.6%	그렇지 않다 73.4%

- **교단선거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불법선거의 명확한 기준 제시 44.7%	당선무효 조항 및 대책 마련 37.2%	기타 18.1%

깨끗한 총회 캠페인 활동 후기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는 모범을!

글_ 박제민 간사

9월이 되면 각 장로교단들이 일제히 총회를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깨끗한 총회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회 첫날인 9월 22일(월) 하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열리는 서울 소망교회를 찾았습니다.

총회 시작은 오후2시였지만, 저희는 오전 11시쯤 현장에 도착해 캠페인 장소를 물색하고, 동선을 확인 한 후에 준비해 간 깨끗한 총회를 호소하는 전단지와 홍보 물티슈를 배포했습니다. 1년에 한번 개최되는 교단 총회의 경우 별의별 억울함을 호소하는 개인 또는 교회가 몰려와 저마다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을 나눠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한 덕분에 준비해 간 전단지와 물티슈를 총회대의원(총대)들에게 많이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총대들이 대부분 입장하고 난 뒤에는 예배당 2층에 마련된 참관석으로 갔습니다. 총회는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총회가 깨끗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대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보통의 예배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의 예배라는 것이 좀 더 강조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회가 준비해준 간식을 먹는데 저희 옆에 어떤 목사님이 앉으셨습니다. 눈에 띄게 젊은 저희를 보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기윤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자신도 젊었을 때 장로교청년회운동을 했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를 가리켜 '한 줌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가셨습니다.

다시 올라서 임원 선거과정을 참관했습니다. 통합은 세련되게 전자투표를 도입해 일사분란하게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교단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모았던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기윤실 공명선거 서약운동에 참여한 채영남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첫날 캠페인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질서 있고 세련되게 진행되는 면도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실속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총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모범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윤실은 교단 총회 임원선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세상에는 모범이 되는 선거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단선거법개정운동 및 ▲총회 부총회장 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서약운동, ▲총회 기간동안 깨끗한 총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교회 밖 현장실천 참가자 즉석인터뷰

진행 및 정리_ 박진영 간사

신뢰받는 교회를 향한 여정, 함께 걸어갈 귀한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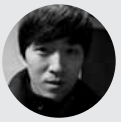
8월 25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목사후보생 4명이 기윤실을 찾아 왔습니다. 장신대 교회 밖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것인데요. 열정 가득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으며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장신대 교회 밖 현장실천>은 신학대학원 2학년생들이 관심 갖고 있는 교회 밖 사역기관을 방문하여 3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입니다.

일시 : 8월25일 OT와 서면 **진행 및 정리** : 박진영 간사(박간사) **참가자** : 김형래(김도사), 소재웅(소도사), 이사도(이도사), 정한효(정도사)

박간사 : 반갑습니다 먼저, 기윤실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김도사 : 솔직히 기윤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윤리 교과목을 들으면서 목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교수님 추천을 받고 기윤실은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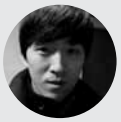
정도사 :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촛불기도회 소식을 접하면서 기윤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박간사 : 많은 현장실천 기관 중에 기윤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원에 재학중이시니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윤실은 지난해 11월, "2013년 한국교회신뢰도여론조사"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9.4% 였습니다. 10명 중 약2명만이 '신뢰한다'라고 답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뢰받는 교회를 위

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도사 : 이유가 어찌 되었건 교회가 질타 받을 때, 어떤 교회나 특정 누구를 무조건 탓하기보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더 참여적이고 보다 더 이타적이고 보다 더 희생적이며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분명한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도사 : 반드시 "기독교" 이름을 앞세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교회 나오라는 식의 전도방식이나 특정한 정치적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참여를 자제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참여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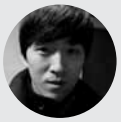


정도사 :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 개인 구원에만 치중된 설교와 교육이 교인들의 신앙적 시각을 어둡게 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드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목회자와 교회 차원에서의 문제 인식과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교인들 스스로 기독교적인 고민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그에 대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간사 : 목회현장에 계시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교회를 책임질 분들을 만나니 신뢰받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꾸미고 싶네요! 앞으로 "목회현장" 관점에서 기윤실이 한국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소도사 : 실제 교회에서 만나뵙는 성도님들은 기윤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윤실이 오랫동안 다양한 운동들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윤실 단체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윤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도사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기윤실의 좋은 운동들이 목회현장에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도사 : 한국교회에 기윤실이 제시하는 화두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단 총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인식에 대한 공론의 장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간사 : 목사후보생 분들과 한국교회의 현실과 기윤실의 역할들에 대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보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모범이 되는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가끔 희미해보였던 신뢰받는 교회 만들기 여정에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함께 해 주세요!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10월 캠페인

"남김없이 먹고, 아낌없이 나누기"

하루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1만 4천톤!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식량자원의 가치는 연간 약 18조원('05년 기준), 처리비용도 연간 6천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기아와 빈곤의 인권문제로도 연결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국제빈곤퇴치의 날(10/17)을 생각하면서 전 지구적 노력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함께 해 주세요.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는 관습을 넘어서 '남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낫다'는 좋은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

UP

- 지구촌 빈곤을 위한 기부 더하기
- 친환경 식재로 구매하기
- 푸드뱅크에 남은 음식 나누기

DOWN

- 먹을 만큼 준비/주문해서 남김없이 먹기
- 매주 월요일은 고기 없는 날 : 고기 섭취량 줄이기
- 냉장고 음식보관 줄이기

10월 1일 세계 채식주의자의 날(World Vegetarian Day)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 (World Animal Day)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UN)
10월 17일 국제 빈곤 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UN)

-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고통받는 이웃과 약자를 위한 복음의 합당한 윤리적 삶을 이루어가는 운동입니다.
-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행복을 위한 불편 레시피 30>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emk.org

기윤실 Christian Ethics Movement

Talk and Action

청년이 발견하다. 청년을 발견하다.

청년의 발견

글_ 김효준 간사

2012년 기윤실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운동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TNA를 시작하였습니다. TNA는 Talk & Action의 약자로 청년들이 직접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5기수가 운영되어 50여명의 청년들이 **노동, 소비, 정치, 사회적경제, 지역운동, 편견 등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토론**하였고 **강좌, 세미나, 캠페인, UCC제작, 워크숍 등의 모습으로 토론의 결과를 실천**해왔습니다.

구분	기간	활동주제	활동내용
TNA 1기	2012년 3~6월	정치, 노동, 자본주의	공개강좌, 세미나, 워크숍
TNA 2기	2014년 9~12월	기독교윤리, 대선, 소비 놀이문화	토론, 세미나, 책나눔
TNA 3기	2013년 3~6월	사회적경제	공개강좌, 거리캠페인, UCC제작
TNA 4기	2013년 9~12월	동네청년	공개강좌, 지역운동, 활동보고회
TNA 5기	2014년 3~6월	편견, 외국인	휴먼라이브러리, 워크숍

5기까지의 운영이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TNA는 개인이 참여해 모인 사람들이 서로 활발히 토론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모임이기에 한 기수에 10명 이하의 소그룹이 한 두 가지의 주제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윤실 울타리에 있기에 활동의 제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기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더욱더 폭 넓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모집을 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싶은 것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 TNA6기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청년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기윤실 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윤실은 지속적으로 기독청년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 청년위원회를 구성 등 제도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윤실 청년운동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4년 8월 27일(수)~10월 5일(일) 오후6시
★ **활동기간** : 2014년 10월~11월(약2달/1회 중간보고/활동보고회)
★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14년 기윤실과 얼굴들 회원만남

한창희 회원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기윤실과 함께해요"

인터뷰/정리_ 김효준 간사

2014년에도 변함없이 회원님을 찾아갑니다. 기윤실은 회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회원님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의견들을 운동에 반영하고 더 친근하고 가까운 기윤실이 되어가겠습니다. 2014년 기윤실과 얼굴들, 두번째 회원만남은 기윤실 인턴간사 출신으로 현재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20대 한창희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8월12일(화) 오후 3시, 감리교신학대학 앞에서 아주 화창한 날씨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1. 한창희 회원님은 어떻게 기윤실을 아시게 되었나요?

학부를 졸업할 때쯤 돼서 사회운동단체를 좀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기윤실 활동을 하시던 누나의 부탁으로 기윤실 행사포스터를 감신대에 붙이는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간사님의 명함을 받아 놓았다가 무작정 전화를 해서 기윤실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알바나 인턴을 뽑을 계획이 있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기윤실에서 알바개념으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과정에서 정식으로 기윤실을 소개받고 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Q2. 그러면 인턴간사를 하시면서 바로 또 후원을 하시게 되셨나요?

아, 시기는 알바가 끝난 다음인데요. 후원을 하게 되었던 것은 계기가 있어요. 2014년 회원총회를 인턴간사로 도우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때 손봉호 교수님이 기윤실은 이미 없어졌어야 하는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교회의 자정능력을 통해서 없어졌어야 하는 단

체인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윤실은 정말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운동하는 단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 운동에 나도 동참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Q3. 기윤실 운동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동참하고 있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관심 있게 동참하고 있는 운동은 자발적불편운동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차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것이 작고 소소하지만 거대한 하나님나라를 지키는 운동이구나'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기윤실에서 자발적불편운동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발적불편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 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저도 영감을 많이 받았고 저 스스로도 이 운동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Q4. 기윤실에 제안하고 싶은 운동이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의 교인들이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 같아요.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믿거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해야 한다거나, 마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거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윤실에서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세습반대운동이나 깨끗한 총회운동 등도 교인들에게 그 운동을 보여줌으로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Q5. 앞으로 한국사회와 교회에서 기윤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나요?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교회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라고 계속 말해주고 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고인 물처럼 썩어가고 있는 교회를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 정화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윤리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Q6. 회원 서비스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기윤실 회원인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소식지 등을 통해서 소식을 잘 전해주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회원으로서 저의 의견을 기윤실에 제시하고자 한다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 통로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딱 마련되어 있는 통로는 없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대원생인데, 여기 다른 신대원생들이 기윤실이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심지어 기윤실이란 단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신학생들이 특히나 관심이 있을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Q7. 마지막으로 한마디! !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기윤실과 함께해요!"

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

수입		지출	
계정과목	7월~8월	계정과목	7월~8월
Ⅰ. 사업수익	41,142,500	Ⅰ. 사업비용	42,408,643
① 회비	23,479,000	① 인건비	25,268,556
㉮ 회원회비	18,013,000	② 사무관리비	6,651,937
㉯ 이사회비	1,770,000	③ 사업비	10,488,150
㉰ 지역회비	3,696,000	㉮ 사업행사비	3,462,930
② 교회,기관후원금	15,300,000	㉠ 회의비	848,800
㉮ 교회,기관후원금	15,300,000	㉡ 홍보비	205,310
③ 사업수입	2,363,500	㉢ 진행비	1,545,520
㉮ 사업후원금	900,000	㉣ 협력사업비	863,300
㉯ 등록비	450,000	㉯ 홍보사업비	2,006,020
㉰ 자료판매비	1,013,500	㉰ 지역사업비	5,019,200
Ⅱ. 사업외수익	778,036		
7~8월 수입계	**41,920,536**	**7~8월 지출계**	**42,208,643**
Ⅲ. 기타	230,030	Ⅲ. 기타	1,021,950
① 선급금의 처분	72,720	① 예수금의 결제	215,950
② 미지급금의 발생	67,720	② 선급금의 발생	806,000
③ 예수금의 발생	89,590		
Ⅳ. 전기(월)이월	127,198,597	Ⅳ. 차기(월)이월	125,918,570
① 현금	283,320	① 현금	508,370
② 예금	126,915,277	② 예금	125,410,200
총 계	**169,349,163**	**총 계**	**169,349,163**

* 7-8월 총 수입은 41,920,536원, 총 지출은 42,408,643원으로 순자산이 488,107원 감소하였습니다. 7월 말, 제주평화순례 참여로 진행비, 교육훈련비 등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 8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은 125,918,507원입니다. (Ⅳ. 차기이월 참고 : 현금 508,370원, 예금 125,410,200원)
* 후원자 현황 : 개인후원은 7월 625명, 8월 610명이며, 교회기관후원은 7월 50곳, 8월 45곳입니다.
* 소식지에 싣는 회계보고(수지결산서)는 편의를 위해 두 달분을 통합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월별 세부 내역은 기윤실 홈페이지 "기윤실 살림살이"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기윤실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교회, 단체의 후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기윤실 회원가입

홈페이지(www.cemk.org)와 전화(070-7019-3757)를 통해 연후원(5만원 이상), 월정기후원(1만원이상), 소액후원(신용카드/휴대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입금은행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 037-01-0504-979	우리 821-05-002520	기업 070-013538-01-022	
농협 074-01-121183	제일 377-10-025628	신한 140-001-056299	
하나 109-228746-00104	외환 144-13-05572-6	씨티 136-50810-258	지로번호 7530353

* 신규회원

07월(4명) DP1400060 정동근, DP1400063 신창조, DP1400070 안은애, DP1400075 임하라
08월(4명) DP1400077 이병주, DP1400080 손경화, DP1400081 정미나, DP1400088 정연승

2014년 07~08월
후 원 자 명 단

07월

개인 후원금 (625명 / 10,834,000원)

(1천) 김범영 장서은 장윤희 (2천) 기웅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김춘곤 남영란 명호중 문현주 박정우 방순영 손은순 이정훈 정영미 조인진 (4천) 정지연 (5천) 강민봉 강영수 강춘례 강현주 곽종철 권오재 권태현 김경숙 김경호 김고운 김규성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드보라 김령희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수정 김연수 김용미 김유숙 김이수 김인숙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종호 김주현 김준철 김준희 김진규 김한나 김혜경 김홍환 김홍식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나종주 나현집 남준일 남혁권 노광섭 노대웅 노승아 류종우 문경환 문덕암 문정옥 박경희 박미정 박상돈 박상일 박서현 박세진 박수정 박숙영 박은지 박재완 박정민 박종일 박지영 박혜경 박환승 배재수 배진성 배진화 백인남 백지열 서예령 서효정 성근해 성우경 손영일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대희 신동립 신동일 신수현 안정은 안지현 여신은 오세란 오창섭 우현기 유미래 유창수 유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미정 윤성우 윤영휘 윤해균 은현희 이건 이경진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도홍 이동혁 이범석 이범우 이병삼 이상주 이상철 이성곤 이영분 이용아 이은자 이정민 이정은 이정희 이종숙 이종혁 이창미 이충학 이태희 이필성 이해영 이혁재 이희열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금영 정병선 정선우 정성진 정수덕 정왕효 정유선 정철민 정한철 조경철 조양래 조은경 조인형 조천권 최경구 최경석 최성숙 최영애 최영춘 최웅권 최인영 최종원 하용정 하재웅 하태웅 하현주 한기채 한석환 한유식 한재량 한창희 한화영 허동혁 홍선희 홍일선 홍정진 홍창진 홍택주 황명화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명호 유영신 이춘화 (1만) 강대현 강명길 강승우 강승철 강은경 강일구 강진호 강춘근 강현주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승표 고은영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권명희 권민규 금은미 기세충 김경천 김광환 김기호 김달수 김대만 김대인 김대중 김두희 김말순 김명금 김미령 김민규 김병일 김상범 김상수 김성경 김성근 김성열 김성천 김성태 김성호 김영규 김영모 김영봉 김영철 김예운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은수 김은지 김재홍 김재환 김정미 김정섭 김준영 김지태 김진표 김태훈a 김태훈b 김학동 김한성 김현태 김형중 김혜경 김혜창 김홍섭 김홍주 김효준 김희경 남궁설 남대일 남제현 도낙주 류기성 문규 문석윤 박경춘 박기출 박민선 박복애 박상호 박상홍 박영범 박윤배 박윤정 박은하 박인애 박재장 박정임 박제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영 박진욱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한옥 박홍래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백상인 백현주 범학식 변현정 변희중 서동천 서일향 소은중 손덕순 손상문 손용기 손은숙 손은정 손주익 송미옥 송병문 송재기 송준인 송태현 송형록 신상린 신연경 신은정 신전수 안선옥 안신길 안은상 안은애 안태주 양병이 양영두 양지혜 엄현식 오기맹 오동근 오상덕 오성만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대 원응삼 유미정 유영준 유원욱 유재균 유정윤 유현숙 윤나래 윤민영 윤병주 윤양숙 윤태호 이경천 이근무 이금노 이금성 이기선 이길승 이동철 이방욱 이병환 이봉원 이삼희 이상규 이상복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성호 이수진 이예성 이용천 이용훈a 이용훈b 이원영 이월숙 이인영 이재민 이재윤 이재윤 이찬호 이천화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화영 인훈 임일택 임종록 임태규 장기화 장소랑 장옥선 장지인 장혜경 전병선 전선영 전종갑 정규장 정대원 정동근 정명숙 정명혜 정병오 정영훈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현철 정화선 정화조 조경하 조무성 조영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여 입금 내용을 싣습니다. CMS로 후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전월 미출금 된 금액이 차월에 함께 출금(최대 3개월)되기 때문에 월별 후원금이 회원님께서 약정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서울에서는 서울지역 및 미조직 지역 회비만 관리하므로 서울 이외의 지역 회원께서는 각 지역 기윤실 소식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아 간사
070-7019-3756,
khash8501@nate.com

균 조영미 조용환 조우철 조정미 조종호 조태례 조현 조혜미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진미자 최경숙 최근영 최삼열 최삼욱 최상태 최우석 최융 최정철 최지원 최창명 최태연 최해홍 최희영 추민수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종 하숙희 한귀목 한상호 한신영 한인애 한인철 한지연 허영진 홍인기 황철진 익명후원자 (1만1천) 서종오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강현주 김명찬 김상인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안연희 윤영관 정세열 (2만) 강석우 구예리 권장희 김동조 김문돌 김민숙 김병식 김세진 김승희 김용군 김정욱 김정웅 김종필 김현아 남재환 남태일 노성순 도종수 박경순 박대호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성진 박은미 박재한 박종원 박태순 박판근 백명희 서임선 손영걸 손화철 송인수 신국원 신창조 신호균 안병직 양낙흥 오혁진 유건호 유혜원 이만열 이문규 이상현 이수경 이용규 이원애 이원영 이윤정 이재문 이재헌 임소희 임지웅 장춘복 정애리 정은영 조성돈 조제호 조현영 최병제 최성수 최영석 최윤선 함봉식 홍관수 홍인종 황규산 (3만) 김선욱 김성현 김영철 김정민 김진석 김철준 박종진 박종환 박철 손기식 송택호 엄용환 유성오 유해신 윤혁경 이상진 이철진 이희석 임성빈 임하라 정문희 홍대식 황석주 (4만) 김경미 박제우 (5만) 김경래 김미숙 김완섭 김충환 김효민 류인복 문현미 박종운 박창균 신경은 이원근 이의용 이인택 이창산 장영상 정철도 조성극 최광사 허일구 (5만5천) 조흥식 (10만) 김일수 우창록 전재중 채홍석 (15만) 손봉호 (20만) 강영안 김구 김대준 박원주 이장규 (100만) 김신욱 (120만) 익명후원자

교회 기관 후원금 (50곳 / 8,140,000원)

(1만) 동서장로교회 서울일본인교회 송전감리교회 (2만) 포항바다교회 (3만) 양무리중앙교회 빛과소금교회 (5만) 지구촌교회 서울광염교회 부천평안교회 마산재건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진교회 (10만) 대주산업 남서울교회 동일교회 강변교회 덕수교회 잠실중앙교회 신반포교회 일원동교회 반월중앙교회 서울서문교회 일산은혜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언약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지비젼인터내셔널 동부광성교회 분당소망교회국내선교부 목민교회 부천예인교회 오륜교회 서문장로교회 은혜샘물교회㈜티에이케이 (16만) 서울남교회 (20만) 분당샘물교회㈜마임 고양화평교회 고척교회 향상교회 (25만)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30만) ㈜소프트이천 100주년기념교회 우리들교회 목산침례교회 (40만) 남서울은혜교회 (50만) 빛소금교회(한영교회) (100만) 서울영동교회 지구촌교회

08월

개인 후원금 (610명/ 8,949,000원)

(1천) 김범영 장서은 장윤희 (2천) 기웅서 오동춘 정지연 (3천) 김원섭 김은이 남영란 명호중 문현주 박정우 방순영 서동진 손은순 이정훈 정영미 조인진 (5천) 강민봉 강영수 강춘례 강현주 곽종철 권오재 권태현 김경숙 김경호 김고운 김규성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드보라 김령희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수정 김연수 김용미 김용우 김이수 김인숙 김재균 김정현 김종호 김주현 김준철 김준희 김진규 김춘곤 김태훈 김한나 김홍환 김흥식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나종주 나현집 남준일 남혁권 노광섭 노승아 류종우 문경환 문덕암 문정옥 박경희 박미정 박상돈 박상일 박서현 박세진 박수정 박숙영 박은지 박재완 박정민 박종일 박지영 박혜경 박환승 배재수 배진성 배진화 백인남 백지열 서효정 성근해 성우경 손경화 손영일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대희 신동립 신수현 안정은 안지현 엄현식 여신은 오세란 오창섭 우현기 유미래 유창수 유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미정 윤성우 윤영휘 윤해균 은현희 이건 이경진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도홍 이동혁 이범석 이범우 이병삼 이상주 이상철 이성곤 이영분 이용아 이은자 이정민 이정은 이정희 이종숙 이종혁 이창미 이충학 이태희 이필성 이해영 이혁재 이희열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금영 정병선 정선우 정성진 정수덕 정왕효 정유선 정철민 정한철 조경철 조양래 조은경 조인형 조천권 최경구 최경석 최성숙 최영애 최영춘 최웅권 최인영 최종원 하용정 하재웅 하현주 한기채 한석환 한유식

한재량 한창희 허동혁 홍선희 홍일선 홍정진 홍창진 홍택주 황명화 황선영 (7천) 신명호 유영신 이춘화 (1만) 강대현 강명길 강석우 강승우 강승철 강은경 강일구 강진호 강춘근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승표 고은영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권명희 권민규 금은미 기세충 김경천 김광환 김기호 김달수 김대만 김대인 김대중 김두희 김말순 김문돌 김미령 김민규 김병일 김상범 김상수 김성경 김성근 김성심 김성열 김성천 김성태 김성호 김영규 김영모 김영봉 김영철 김요열 김윤수 김은수 김은지 김재홍 김재환 김정미 김정섭 김정웅 김준영 김지태 김태훈 김학동 김한성 김현아 김현태 김형중 김혜경 김혜창 김홍섭 김홍연 김홍주 김효준 김희경 남대일 남제현 도낙주 류기성 문규 문석윤 문소영 박경순 박경춘 박기출 박민선 박복애 박상호 박상홍 박석호 박영범 박윤배 박윤정 박인애 박일화 박재장 박정임 박제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영 박진욱 박진희 박태영 박한옥 박혜윤 박홍래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백상인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동천 서일향 소은중 손덕순 손상문 손용기 손은숙 손은정 손주익 송미옥 송병문 송재기 송준인 송태현 신상린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안선옥 안신길 안연희 안은상 안은애 안태주 양병이 양영두 양정석 양지혜 오기맹 오동근 오상덕 오성만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대 원응삼 유미정 유영준 유원욱 유재균 유정윤 유현숙 윤나래 윤민영 윤병주 윤양숙 윤태호 이경천 이근무 이금노 이금성 이길승 이동철 이방욱 이병환 이봉원 이삼희 이상규 이상복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성호 이성훈 이수진 이영민 이용천 이용훈a 이용훈b 이우길 이원영 이월숙 이인영 이재민 이재윤 이찬호 이천화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화영 인훈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태규 장기화 장소랑 장옥선 장혜경 전선영 전점애 전종갑 정규장 정대원 정명숙 정명혜 정미나 정병오 정애리 정연승 정영호 정영훈 정유진 정윤호 정준 정현철 정화선 정화조 조경하 조무성 조영균 조영미 조용환 조우철 조정미 조준호 조태례 조현 조혜미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지연심 진미자 최근영 최삼열 최삼욱 최상태 최우석 최용 최정철 최지원 최태연 최해홍 최희영 추민수 태원우 하경열 하만종 한귀목 한상호 한신영 한인애 한인철 허영진 홍인기 (1만1천) 서종오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김명찬 김상인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윤영관 정세열 (2만) 강성효 구예리 권장희 김동조 김민숙 김병식 김세진 김승희 김용군 김정욱 김종필 남재환 노성순 도종수 박대호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상규 박은미 박재한 박종원 박판근 백명희 서임선 손영걸 손화철 송복순 송인수 신국원 신호균 안병직 양낙홍 오덕수 오혁진 원연희 위국명 유건호 유혜원 이만열 이상현 이수경 이슬이 이용규 이원애 이원영 이윤정 이재문 이재헌 임지웅 장춘복 전광운 정은영 정혜숙 조제호 조현영 최병제 최성수 최영석 최윤선 함봉식 홍인종 황규산 (3만) 김선욱 김성현 김영식 김영철 김정민 김진석 김철준 박종진 박종환 박철 손기식 송택호 엄용환 유성오 유해신 윤혁경 이상진 이철진 이희석 임성빈 임하라 정문희 홍대식 황석주 (4만) 이병주 장영순 한병선 (5만) 김경래 김미숙 김완섭 김충환 김효민 류인복 문현미 박종운 박창균 신은정 이원근 이의용 이인택 이창산 장영상 정철도 조성극 최광사 허일구 (5만5천) 조흥식 (10만) 김일수 손봉호 우창록 전재중 채홍석 (15만) 정연희 (20만) 강영안 김구 김대준 박원주 이장규 (50만) 김신욱

교회 기관 후원금 (45곳 / 7,160,000원)

(1만) 동서장로교회 서울일본인교회 송전감리교회 (2만) 포항바다교회 (3만) 빛과소금교회 양무리중앙교회 (5만) 마산재건교회 부천평안교회 산울교회 서울광염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진교회 지구촌교회 (10만) ㈜티에이케이 강변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대주산업 덕수교회 동일교회 목민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분당소망교회국내선교부 서문장로교회 서울서문교회 신반포교회 언약교회 오륜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은혜샘물교회 일산은혜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지비젼인터내셔널 (20만) ㈜마임 고양화평교회 고척교회 향상교회 (30만) ㈜소프트이천 100주년기념교회 우리들교회 (40만) 남서울은혜교회 (50만) 빛소금교회(한영교회) (100만) 서울영동교회 지구촌교회

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윤실 소식을 나눕니다.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지역 활동에 관심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기윤실 **1. 대구기윤실과 성서대구 북 콘서트** 6월9월 25일(목) 오후7시, 대구기윤실 사무실에서 한국자끄엘륄협회의 총무 이사로 엘륄의 글과 사상을 꾸준히 한국에 소개해온 배용하 사장(대장간출판사)을 모시고, 자끄 엘륄의 『뒤틀려진 기독교』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10월 북콘서트는 10월6일(월) 오후7시에 신성관 목사의 『Simply bible』활용세미나로 진행됩니다. 갓피플 등 주요기독교 포털과 SNS에서 주목받던 심플리 바이블 강좌를 통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맥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기윤실 **1. 공공신학 연속 포럼** 부산기윤실에서는 공공신학 포럼(신앙의 사유화를 넘어서)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27일 1차 포럼(이강일 소장, 김성호 교수)에 이어 지난 9월1일(월) 오후7시에는 부산중앙교회에서 양희송대표(청어람아카데미)를 강사로 강승철 장로(대청교회)와 문춘근 목사(사귐의교회)를 패널로 초청하여 진행했습니다. 10월 9일(수)에는 부산IVF회관에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를 초청하여 그의 저서 "광장의신학"을 가지고 북토크를 통하여 공공신학포럼의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 청년, 젊은이 모임** 매월 둘째주 금요일 7시마다 광복동 프라미스랜드에서 부산기윤실 청년모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울산기윤실 **1. 이종인 사무처장 사임 및 유형철 간사 선임** 몇 년간 울산기윤실에서 실무자로 수고한 이종인 사무처장이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행위원으로 계속 울산기윤실 사역을 돕게 됩니다. 후임으로는 전 울산과 부산기윤실 간사로 섬겼던 유형철 간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보다 진전된 울산기윤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청소년 토요인문학교** 10월 첫 주에 완료됩니다. 개교한지 3년간 청소년들과 인문학도서를 읽고, 서평을 쓰고 토론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한 단계 진전된 청소년, 청년 독서모임을 생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기윤실 **1. 퍼스펙티브스 개강** 9월22일(월) 오후7시 선교한국 파트너스 주최, 익산PSP연합(익산기윤실, (사)새벽이슬, DFC, DSM, ESF)주관으로 퍼스펙티브스를 진행합니다. 12주간 진행되는 퍼스펙티브스는 올바른 선교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 캠페인** 9월27일(토) 오후2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사)새벽이슬에서 주관하는 2014년 익산시청소년 어울림마당 스타킹 축제에 부스 참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주기윤실 **1. 2014년 겨자씨가정축제** 청주기윤실과 전주기윤실이 공동으로 8월4일(월)~5일(화)1박2일 동안 삼정부여유스호스텔에서 작은교회 농어촌 목회자 20가정을 초청하여 쉼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 교회세습반대 전주순회강연회** 전주기윤실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공동주관으로 9월16일(화) 오후7시, 전주강림교회에서 교회세습반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영재 목사(전주화평교회)의 주제 강연과 패널토의로 진행되었습니다. **3. 신천지예방포스터 제작** 배포 전라북도기독교연합회,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전북기독교이단상담소와 공동으로 신천지이단예방 포스터 5000장을 제작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교회에 배포하였습니다.

진주기윤실 **1. 청소년문화교실** 8월 11일(월) 오후1시30분, 진주독산교회에서 정병오 선생(전 좋은교사운동 대표, 문래중학교 교사)을 모시고 "나는 누구인가? 왜 공부하는가?" 라는 주제로 기독교적 시선으로 진주시 각 교회 청소년들과 나눔을 가졌습니다. 기독 청소년의 자리에서 주님과 자신을 생각하는 기회였으며, 부모들은 각 교회 중등부나 고등부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램과 학부모 교육도 청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진주기윤실 21주년 설립기념** 9월20일(토) 오전9시에 구례드림파크에서 회원야유회가 진행되며, 10월 1달 동안 유기농 건강식재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청주기윤실 **1. 청주기윤실**은 여름방학 기간 청년독서모임으로 진행한 세 차례의 독서 강연회(자캐오신부, 박삼종 목사, 백소용 교수)와 겨자씨 가정축제 등 지난 호에 소개한 행사들을 풍성하게 잘 마쳤습니다. **2. 건강교회포럼** 9월15일(월), 사랑나눔교회(한재희 목사)에 모여 "교회 안의 반지성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 대한 주제 나눔이 있었습니다. 건강교회포럼은 하반기에 윤리부흥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기독인문학강연나눔회**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의 실천" 에 대한 주제로 기독인문학 강연나눔회를 개최합니다. 첫 강연나눔은 9월27일(토) 오후2시, 양희송 대표(청어람)를 모시고 진행되며, 두 번째는 10월27일(월) 오후7시에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재단)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그 이후로는 박득훈 목사(새맘교회), 신성관 목사(심플리 바이블 저자),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2014년 전국기윤실수련회

전국기윤실수련회가 8월14일(목)~15일(금)까지 여수은현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8개 지역에서 54명의 실행위원과 실무간사, 회원이 참여하여 교제와 함께 기윤실 운동에 대해 한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임장소 및 수련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수기윤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프로그램** : 개회예배(김정명 목사), 기윤실 운동 토론회, 손양원 목사 유적지 탐방(순교지, 애양원), 여수 엑스포장 관람 등

전국기윤실협의회

지역·실무·연락처·이메일·후원계좌

〈활동지역/해외〉

대구 · 최성훈 간사 / 053-959-4628 / dgcemk@daum.net / 국민은행 959-4628-0530

대전 · 도인호 사무처장 / 010-2246-8274 / dopriest@naver.com / 농협 302-0395-1724-41

부산 · 가정호 사무국장 / 051-462-1558 / mento123@hanmail.net / 부산은행 023-01-026431-6

여수 · 곽종철 공동대표 / 010-4622-1877 / 농협 01911004-19 / jc1877@hanmail.net

울산 · 이종인 사무처장 / 010-7548-6757 / 007kkum@hanmail.net / 우리 1002-235-880203

익산 · 최준호 사무국장 / 010-8442-1091 / worship4620@hanmail.net / 농협 312-0084-8270-21

인천 · 김홍섭 공동대표 / 010-3231-9265 / ihomer@hanmail.net / 시티은행 433-00796-250

전주 · 김윤배 사무국장 / 010-4245-9222 / kyb0191@hanmail.net / 전북은행 603-13-0310301

진주 · 이강근 사무국장 / 055-747-1484 / jingiyun@korea.com / 농협 803-01-364451

청주 · 오동근 사무국장 / 043-274-5852 / ohdongk63@gmail.com / 신한은행 140-000-822492

LA · 박상진 간사 / cem_la@yahoo.com / www.cemkla.org

워싱톤 · 예덕천 집사 / dcyeh1@gmail.com/ http://cemusa.org

〈활동준비지역〉

제주 · 김광종 사무국장 / 010-9744-1477 / hymn4747@hanmail.net

광주·춘천은
서울기윤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전국기윤실수련회

글_ 최준호 사무국장(익산기윤실)

매년 개최되는 전국기윤실수련회는 항상 마음이 설렌다. 지역 실무자들이야 종종 보지만 타 지역 대표님이나 실행위원 등 다양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각 지역에서 진행했던 기윤실 사역들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회예배에서 김정명 원로목사(여수은현교회)께서는 기독인으로서 말로만 사랑과 정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셨는데 듣는 내내 얼마나 양심이 찔리던지 뜨끔뜨끔 했다.

저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기윤실 운동을 생각한다"는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한 8개 지역의 관계자들이 각각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각 지역의 발제를 들으면서 기윤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민과 열정이 느껴졌다.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통해 지역기윤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생각과 방법들이 나왔고 같이 공감하고 질문도 하며 기윤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제 이 고민들과 생각들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둘째 날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기념관을 탐방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환자들의 상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낸 유명한 일화가 있으신 분이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에 의해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와 순교신앙 앞에 숙연해졌다.

1박 2일간의 전국기윤실수련회는 내게 힐링캠프가 되었다. 올해 익산기윤실 실무자로 일한지 3년이 되었다. 많은 년 수는 아니지만 3년 동안 익산기윤실 사역을 하며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어느 때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틀간의 전국기윤실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한편으로는 내가 익산기윤실 실무자로서 일할 원동력을 얻었다.

활동보고

07/16(수)~08/31(일)	자발적불편운동 여름캠페인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07/21(월)~25(금)	제3회 제주평화순례
07/21(월)~08/20(수)	총회 임원선거 인식 설문조사
07/21(월)~08/29(금)	2014년 좋은교회상 공모
07/30(화)	[긴급공지] 기윤실 사칭 성경공부,
	기도모임 권유 조심하세요~
08/05(화)	세월호 참사 특별 뉴스레터 2호 발행
08/05(화)~08/08(금)	좋은교사대회(연세대 원주)
08/11(월)~09/22(월)	세월호 참사 촛불기도회(매주 월요일)
08/12(화) 15:00	한창희 회원 인터뷰
08/14(목)~15(금)	전국기윤실수련회(여수)
08/25(월) 14:00	장신대 교회밖 현장실천 OT
08/28(월) 18:30	4차 상임집행위원회
08/30(토) 10:00	라이프호프 생명보듬걷기대회(여의도)
09/02(화) 17:00	교단선거 기획좌담
09/04(목)	세월호 참사 특별 뉴스레터 3호 발행
09/16(화) 19:00	교회세습반대 지역강연회(전주강림교회)
09/17(수) 11:00	장신대 신대원 사경회 부스운영
09/18(목)	변칙세습을 포함한 포괄적인 세습금지
	방침 마련을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09/18(목) 16:00	강성효 회원 인터뷰
09/22(월) 11:00	깨끗한 총회 캠페인 – 예장통합(소망교회)

활동계획

09/25(목)~11/13(목)	NPOpia 공익경영아카데미
	2기(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9/29(월) 19:30	세월호 참사 촛불기도회(서울파이낸스센터 앞)
09/30(월) 19:30	[월례포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회복지편〉(서울영동교회)
10/01(수)~31(금)	자발적불편운동 10월 캠페인
	"남김없이 먹고, 아낌없이 나누기"
10/07(화) 18:00	5차 상임집행위원회의
10/13(월)~12/05(금)	청년TNA 6기 활동
11/14(금) 14:00	교회재정세미나 "재정공개"

활동스케치

라이프호프와 함께 하는 생명보듬걷기대회

8월 30일(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한 "생명보듬걷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와 일반참가자로 지원해 주셔서 1천5백여명이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려쬐는 뙤약볕이 무색하게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최선을 다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살예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www.lifehope.or.kr)

장신대 신대원 가을사경회 홍보부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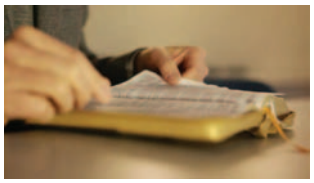
9월 17일(수) 장신대에 신대원 가을사경회 홍보부스 운영 및 기윤실 설명회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예비 목회자들을 만나는 설렘과 앞으로 교회와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될 초석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니, 유난스러운 기대의 마음을 품고 갔습니다. 기윤실 부스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운동과 성경연구와 한국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매년 진행되는 "장신대 교회 밖 현장실천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반가운 얼굴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회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진영 간사)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세기모)을 소개합니다.

기윤실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17개 단체와 연합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이하 세기모)"을 조직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세기모는 ▲지난 7월9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중이며, ▲8월11일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촛불기도회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 및 참여방법은 기윤실로 문의하시거나 세기모 페북 페이지(www.facebook.com/sewolchris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진영 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운동에 동행해주세요!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지난 26년 간 공명선거운동, 깨끗한 총회운동, 직업윤리 회복을 위한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족,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대학생위원회, 기독시민아카데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담임목사직 세습반대운동, 정직투명성 운동,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교회의 사회적책임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되고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2014년 기윤실 주요운동 정직윤리운동으로 "자발적 불편운동, 기윤실월례포럼", 교회신뢰운동으로 "깨끗한 총회운동, 교회의 사회적책임 운동", 사회정치윤리운동으로 "6.4 지방선거운동, 청년TNA 5,6기(talk & action)", 협력운동으로 "교회세습반대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보기

쉽고 빠른 기윤실 후원방법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위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1. **홈페이지 후원신청하기 www.cemk.org**
기윤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기윤실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정기후원가입하기〉,〈일시후원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하기 02-794-6200**

* 평일 오전10~오후6시 기윤실로 전화주시면 후원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후원해 주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는 격월간 소식지(우편)와 뉴스레터(이메일)를 발송해드립니다.

기실 Christian Ethics Movement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cemk@hanmail.net www.cemk.org